

기획특집 | Special Reports

국가 만들기와 다듬기: 19세기 페루의 잉카관(觀)의 형성과 변화

정한솔

I. 들어가며

완전히 중립적이고 공평무사한 역사서술은 드물다. 당대의 사회상황에 따라 역사서술은 쉽사리 바뀔 수 있기에, 이제는 진부한 인용구가 되어버렸지만 에드워드 카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역설했다. 지나간 사실은 과거에 지나지 않지만 현재가 그것을 (헤이든 화이트에 따르면 일정한 수준의 문학과 함께) 엮어내면 역사로서 기능한다. 그렇기에 역사서술학(historiography)이라는 분야가 하나의 학문으로서 존립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룰 페루 역시 지난 5백여 년 간 격변의 역사를 겪어왔고, 그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역사서술의 조류 역시 크게 바뀌었다.

우선 1536년의 잉카 정복이 가장 먼저 그 전기를 마련했다. 와만 포마데 아얄라에 따르면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mundo al revés) 사건이었던 잉카의 멸망은²⁾ 페루 역사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이었다. 잉카는 키푸(quipu)라는 결승문자를 제외하고는 역사를 서술할 수 있는 방법을 지니지 못했기에 식민시대 역사가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옛 잉카의 흔적을 상당한 수준의 상상력과 함께 써내려갈 수 있었다. 그들은 페루 역사의 백지를

2) 우석균, 「문화 혼종인가 갈등인가?: 안데스 유토피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편, 『차이를 넘어 공존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7, p. 178.

처음으로 채워나갔다.

본고에서는 이후 두 번째 전회가 일어난 시대, 즉 페루의 독립을 전후하여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의 시기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미 베네딕트 앤더슨이나 데이비드 브레이딩을 비롯하여 여러 잘 알려진 역사가는 이 시기를 다루며 크리오요 민족주의의 탄생에 주목했다. 이들은 크리오요가 주축이 되어 독립을 시도하고 국가를 만들면서 어떻게 국사(國史)를 써 나갔는지에 대해 정교한 연구를 제공한다. 당대 크리오요들이 마주했던 문제는 이미 지적되었듯, 모두가 공통의 운명(권리)을 지니지는 않으나 공통의 기원을 가지는 국가를 상상해 내는 것이었다.³⁾ 이 모순은 시적으로는 호세 페르난데스의 절규처럼 “[스페인제국의] 그 거대한 탐욕, 광신 그리고 잔학/스페인의 피가 내 핏줄을 타고 흐르네”라는 자괴감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몬 볼리바르가 「자메이카 편지」(Carta de Jamaica)에서 표현했듯 크리오요의 특권에 대한 위협이었다.

우리[크리오요]는 인디언도, 유럽인도 아니다. 다만 이 땅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와 스페인의 강탈자 사이에 그 무엇이다. 다시 말해, 비록 아메리카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권리는 유럽에서 왔고, 우리는 원주민에 대항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그 동시에 침략자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독립시대 전후의 페루인은 어떻게 상존하는 크리오요 우위의 사회질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공화주의적인 국사를 형성할 수 있었는가?

II. 국가 만들기

정복 이후 역사가들의 서술에서 잉카는 놀라운 문명의 건설자이기도 (Miguel de Astete, Hernando Pizarro, Pedro Cieza de León), 중국이나 일본 등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야만인’이기도(José de Acosta), 길가에 버려진

3) 김은중, 「라틴아메리카의 독립과 네이션, 내셔널리즘」, 『중남미연구』 Vol.33 No.1,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4, pp. 284-6.

금은을 줍지 않을 정도로 순수한 사람들이기도(Mancio Serra de Leguizamón), 페루 영토의 정당한 계승자이기도(Bartolomé de las Casas) 했지만, 페루 부왕령의 공식 역사는 식민지 체제의 안정과 정당성을 위해서 잉카를 박하게 평가해야 했다. 부왕령의 요청과 도움을 받아 잉카의 역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잉카 역사』(Historia Indica, 1572)를⁴⁾ 쓴 페드로 사르미엔토 데 감보아는 잉카 역시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이며, 그 지배는 매우 폭압적이고 잔인했다고 서술하며, 스페인은 그러한 폭정을 끝내고 문명화를 수행하기 위해 들어왔다고 체제를 옹호했다. 이 책은 부왕령에 의해 공식적인 페루 역사서로 채택되어 보호받았다.

한편 잉카 지식인층이 식민지 지배에 동화되면서 잉카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와 와만 포마 데 아얄라(Felipe Guamán Poma de Ayala)라는 두 걸출한 역사가를 낳기도 했다. 유려한 필치로 『잉카 왕조사』(Comentarios Reales de los Incas, 1609)을 저술한 잉카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는 식민지 지배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으면서도, 잉카가 기독교의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원주민을 문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잉카를 간접적으로 옹호했다. 반면 와만 포마 데 아얄라는 그보다 과격해서, 원주민에게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는 요지의 편지를 투박한 스페인어로 1,189페이지에 걸쳐 써서 펠리페 3세에게 보내려 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새 연대기와 좋은 정부론』(El Primer Nueva Corónica y Buen Gobierno, 1615?)으로, 잉카 특유의 독특한 세계관을 반영한 삽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17세기 페루 역사서술의 한 축을 이룬다.

이후 비록 공식적으로는 잉카의 역사는 부정되었고, 펠리페 2세는 더 이상 원주민 역사와 종교를 연구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미 잉카에 대한 향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는 잉카 왕(Inkarri) 신화로 대표되는 하위주체의 옛 잉카에 대한 향수이다. 많은 원주민은 갑작스러운 정복과 식민지 시대의 현실을 부정하며, 옛 잉카가 되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특징적인 것은 이들의 믿음에

4) 페드로 사르미엔토 데 감보아(Pedro Sarmiento de Gamboa)는 3권으로 계획했으나 1권과 3권은 미완으로 끝났고, 제2권 『잉카 역사』(Segunda parte de la historia general llamada Indica)만 남았다.

는 가톨릭적인 요소가 깊이 스며들어있다는 것이다. 잉카의 전통적인 대변혁(파차쿠티) 관념이 기독교적 최후의 심판과 연결되면서 잉카 왕 신화는 단순히 과거의 잉카에 대한 기억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미래에 대해 실질적인 힘을 가지는 믿음으로 승화되었다.⁵⁾ 그 힘은 18세기에 빈발한 원주민 반란, 그 중에서도 특히 빌카밤바의 마지막 왕의 이름을 딴 투팍 아마루 2세의 반란(1780-1)으로 폭발하게 된다.

둘째는 바로 크리오요 사이에서 되살아난 잉카에 대한 향수이다. 크리오요는 부르봉 개혁 이후 반도인(Peninsular)에 의해 권력에서 밀려나면서 이베리아 본국과 대비되는 크리오요만의 특성을 찾으려 했고, 잉카는 그 매력적인 대상이었다. 볼테르가 잉카인에 대해 “유럽인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지만 단지 유럽의 악(惡)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유럽에서나 아메리카에서나 잉카를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의 대세를 이루었다. 당대의 기록을 통해 크리오요 식자층 사이에서 ‘잉카적인’ 그림이 널리 팔리고, 케추아어를 구사하는 것이나 코카 잎을 씹는 것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⁶⁾ 즉, 크리오요를 배반한 스페인을 대신하여 잉카가 페루 크리오요의 기원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크리오요는 페루 영토와 역사를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고 추어세우기 시작했다. 페루 계몽주의의 선구자였던 호세 이폴리토 우나누에(José Hipólito Unanue)는 유럽의 지식인이 아메리카의 더운 기후를 탓하며 아메리카 사람을 게으르고 타성적이라고 낙인찍는 데에 대항했다. 그에 따르면 페루는 적도에 위치하지만 고산지대도 있기에 다양한 기후를 지니고 있고 인종도 다양하기에 유럽의 지역주의(provincialism)과 대비되는, 세계의 축소판의 모습을 보여준다.⁷⁾ 이런 축복 받은 땅이 사람들을 길러냈기에 잉카의 창건자인 망코 카팍은 현명한 지도자로서 페루를 통치할 수 있었다.

5) 강성식, 「잉카리 신화, 안데스의 염원」, 『라틴아메리카 연구』 Vol.21 No.4,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8, pp. 155-7.

6) Kenneth Mills & William B. Taylor, *Colonial Spanish America: A Document History*, Scholarly Resources Inc., 1998, p. 337.

7) Mark Thurner, *History's Peru: The Poetics of Colonial and Postcolonial Historiography*,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2011, pp. 84-5.

우나누에는 식민 말기 페루 지성계에 큰 영향력을 지니던 잡지 『엘 메르쿠리오』(El Mercurio Peruano)의 주요 필진이었다. 이 잡지는 후일 페루 독립의 사상적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지성계의 동향을 알리는데 더 집중했으며 페루 부왕령의 지원까지 받았다. 창간호 논평에서 편집장 하신토 칼레로 이 모레이라(Jacinto Calero y Moreira)는 “이같이 온화한 기후와 풍족한 토양을 가진 자연이 사랑하는 페루가 역사가들이 그린 세계에서는 단지 미미한 자리만을 차지하고 있음”을 아쉬워했다.⁸⁾ 그들의 지도에 나타난 페루



18세기 페루에서 그린 펠리페 투파 아마루 공의 초상

는 독립 이후의 페루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 있으며, 18세기에 이미 떨어져 나간 키토 왕국과 알토 페루(Alto Perú, 지금의 볼리비아)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잉카에 의해 창건된 페루 제국이 지금과 같이 분할되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했다. 즉 이들은 스페인 제국(이는 Nación이다)의 일부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라플라타 부왕령 등과는 분리되는 주체로 페루라는 나라(país)를 상상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 영역은 옛 잉카의 타완틴 수유가 아닌 16세기의 페루 부왕령과 일치한다.

이러한 나라의 개념이 조국(patria)으로 전환된 것은 추방당한 예수회 신부 후안 파블로 비스카르도(Juan Pablo Vizcardo)가 1792년 “신대륙의 우리 조국”이라고 선언한 이후였다. 나라의 관념이 페루의 영역을 확정지었다면, 조국의 관념은 페루를 스페인으로부터 분리시켰던 것이다.⁹⁾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원주민 등 당대의 하층민에 대한 동류의식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우나누에는 잉카문명이 정복자들에 의해 파괴된 것

8) *El Mercurio Peruano*, 1791년 1월 2일자.

9) Thurner, p. 87.

을 안타까워하면서(“쿠스코, 카하마르카, 키토에 있었을 결승문자가 모두 먼지가 되어버렸다”) 독자들에게 옛 페루의 영웅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 것을 요구하면서도, 잉카의 위대함은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무기력한 원주민을 강제노역(mitayo)이나 치료목적의 채찍질로써 다스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잉카유적의 웅장함을 칭송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원주민에게는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이런 위대한 문명을 이룰 수 있다고 첨언했다.¹⁰⁾ 이들에게 아직 현재의 원주민은 같은 ‘국가’를 이룰 대상이 아니었다.

원주민에 대한 크리오요의 태도가 바뀐 것은 독립전쟁이 시작되어 원주민의 도움이 절실했던 이후였다. 독립군의 리마 의회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연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형제들이여! (...) 우리가 그대들을 형제들이라 부른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오! 우리는 정말로 형제들이니 말ियो. 우리는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오.¹¹⁾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사가 레베카 얼(Rebecca Earle)이 “조작된 계보”라고 부르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크리오요는 옛 잉카와 연결되었다. 이제 스페인은 완전히 적으로 선포되었고, 지난 식민시대에는 “삼백 년 간의 폭정”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그렇기에 독립 페루는 옛 잉카의 유산을 물려받아 재탄생했음을 자임하면서 페루 국가를 통해 잉카의 복수를 페루가 대신 해주었다고 노래했고, 페루의 국장에는 잉카의 태양(Inti) 문양이 박히게 되었다.

크리오요는 원주민과 함께 잉카의 아들이다. 하지만 잉카제국의 환생을 자임하는 페루가 크리오요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원주민이 아닌 크리오요만이 잉카의 정당한 후계자가 되어야했다. 크리오요 엘리트는 원주민이 지난 식민시대의 폭정으로 인해 퇴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원주민을 잉

10) Jorge Cañizares-Esguerra, “Racial, Religious, and Civic Creole Identity in Colonial Spanish America”, *American Literary History*, Vol.17 No.3, p. 427.

11) Rebecca Earle, *The Return of the Natives: Indians and Myth-Making in Spanish America, 1810-1930*, Duke University Press, 2007, p. 40.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원주민 문명과 무관한 아르헨티나 국기에 태양이 들어간 이유는 독립기의 이러한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

카의 계보에서 배제했다. 단적으로 독립영웅 호세 데 산 마르틴(José de San Martín)은 원주민이 “스페인 정부에 의해 도덕적인 타락 속으로 침잠해버렸다”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했다.

사르미엔토 데 감보아의 이분법이 전복된 형태로 되살아났다. 잉카는 자유와 지혜의 왕국이었던 반면 스페인의 지배는 잔인하고 폭압적이며 야만적인 것이라고 비난받았다. 잉카 아버지의 복수를 크리오요 아들이 대신한다. 아르헨티나 출신이지만 페루의 독립운동에 투신한 베르나르도 데 몬테아구도는 「엘리시움 평원에서의 아타왈파와 페르난도 7세의 대화」(Diálogo entre Atahualpa y Fernando VII en los Campos Eliseos)라는 희곡을 통해 나폴레옹에 의해 폐위된 스페인 왕 페르난도 7세와 피사로에게 왕위를 찬탈당한 아타왈파의 처지가 비슷함을 보여주면서 아타왈파의 입을 빌려 ‘자유 만세’를 외친다. 이와 같이 잉카를 통해 원주민을 동원하는 전략은 유효했는데, 페루에 부임한 스페인 감독관 베니토 데 라 마타 리나레스에 따르면 “거의 모든 원주민은 옛 잉카로부터 스스로의 정당성을 주장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미신적일 정도의 복종과 맹목적인 친애를 보내기 때문”이었다. 크리오요는 원주민의 권리 향상에는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독립의 근거를 원주민 조상과의 상상된 계보에서 찾았다. 페루에서뿐만 아니라 전 대륙에 걸쳐 대부분의 독립군은 페루를 ‘태양의 제국’으로, 페루인을 ‘태양의 아들’로 칭했다. 페루의 해방자 산 마르틴은 퇴역군인을 위해 태양기사단(Orden del Sol)을 창설하고 잉카의 태양을 상징으로 삼으며 말했다.

옛 페루인이 파차카막에 이어 둘째로 숭상했던 이 별[태양]은 오늘날 동맹의 상징이요, 명예의 문장이요, (...) 달리 말해 잉카의 땅의 역사적 표현이며 노예시대[식민시대] 이전에 존속했던 축복받은 시대와 독립 이후 회복된 행복한 날의 기억을 되살린다.¹²⁾

그렇기에 잉카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는 이들에게 국가의 기원에 관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는데, 당시 유럽의 많은 석학은(인종적인 시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채로) 잉카의 건국자, 특히 망코 잉카(그의 아내 마마 오크요를 포함하여)는 서양 출신(Raynal)이거나 중국이나 인도 출신(Humboldt), 혹은 고대 멕시코의 톨테카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페루 지성계는 잉카는 명백히 페루 출신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테면 호세 마리아 데 코르도바는 『페루의 세 시대』(Las tres épocas del Perú o compendio de su historia, 1843)에서 유럽 식자들이 함부로 잉카의 창건자가 페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페루인은 실망감을 느낀다는 솔직한 견해를 밝힌 후 흄볼트나 레이날 등의 주장을 반박하고 망코 카팍은 티티카카 호수 출신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리아노 리베로는 스위스의 지식인 야코프 폰 추디와 공저한 『페루 고대사』(Antigüedades Peruanas, 1851)에서, 망코 카팍이 동방에서 왔을 것이라는 흄볼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망코 카팍은 단지 조연자였을 뿐이라면서 잉카의 왕실은 지역의 고귀한 가문인 잉카 로카(Inca-Rocca,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는 신치 로카라고 기록)가 망코 카팍의 도움을 받아 잉카를 창건했으리

12) Earle, pp. 62-3.

라고 주장했다. 잉카의 기원에 관한 이와 같은 논쟁은 민족주의적, 인종주의적인 흐름과 깊은 연관성을 유지하며 20세기 초반까지 열띠게 이어졌다.¹³⁾

III. 국가 다듬기

1824년 아야쿠초(Ayacucho) 전투를 끝으로 페루는 완전히 독립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국가의 형태만 완성되었을 뿐 페루라는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았으며, 심지어 영토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페루와 볼리비아 연합의 비전을 깨트린 연합전쟁과 뒤이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 그리고 태평양전쟁(Guerra del Pacífico)의 뼈아픈 패배는 페루가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했다. 국가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19세기 후반기 페루의 지성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역사가이자 교육가 세바스티안 로렌테(Sebastián Lorente)였다. 로렌테는 단순히 역사가와 교육가를 겸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한 교육을 목표로 했다. 로렌테에 따르면, 페루의 고대사에 무지한 자는 “현재의 우리 상황도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를 자신 있게 이끌어갈 수도 없다.”¹⁴⁾ 왜냐하면 페루는 옛적부터 “영혼”과 “국가 정신”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이 국가 정신, 혹은 페루 정신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공화주의적인 정신으로서 결국 국사란 이러한 공화국 페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로렌테의 역사관은 낙관주의로 가득 차 있다.

과거의 위대함은 우리에게 미래를 예시하기에, 그리고 페루가 이를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기에, 우리는 큰 결단으로 합심하여 페루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옛적 원주민이 해냈던 것은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한 문명의 확실한 조짐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도 명징하게 그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¹⁵⁾

13) Turner, pp. 94-109.

14) Sebastián Lorente, *Historia antigua del Perú*, Lima: Librería de Masias, 1860, pp. 8-9.

헤이든 화이트는 분명히 역사에 대한 희극적 내러티브라고 평했을 로렌테의 역사관은 역시 낙관주의적이었던 프랑스 역사가 쥘 미슐레를 연상시킨다. 실제로 페루 역사서술학 연구자 마크 터너(Mark Thurner)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로렌테는 미슐레의 역사관인 “사람들(pueblo)에 의해 현실화되는 통일된 전체로서의 역사라는 관념”¹⁶⁾을 공유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그에게 19세기 전반의 이분법적인 잉카-스페인 구도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결국 지금의 페루적 정신은 잉카만큼이나 스페인 식민시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유산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페루 정신을 위한 발전의 한 계기로 다뤄져야 한다. 그렇기에 로렌테는 『페루의 고대사』(Historia antigua del Perú, 1860)의 서문에서 잉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지만 잉카의 문명은 결국 부스러졌다. 그것은 크리스티교의 더 우월한 문화에 대한 최선의 대비가 아니었던 것이다. 진보적인 요소보다는 그 규율에 더 뛰어나고, 그 찬란함만큼 연대적이지 못하다면, 제국의 거대함이 그 외부로의 확장에 제한을 가할 때 내부의 움직임이 부족해져 그 스스로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실제의 힘은 없이 변영의 거짓된 모습을 유지한다면 에너지 넘치는 침입자가 가하는 단 한번의 공격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태양의 아들들은 인본적 자유를 없앴고 가족을 공동체에, 사적소유를 사회적 소유에, 조국을 신적인 왕(Dios-Rey)에게 바쳤다. 개인의 에너지를 절대적 신정정치 아래에 눌러버리고, 온 주민을 향한 신성한 전쟁에 더해 국가 및 가정에서의 종속과 함께, 온 사회를 짓누르는 봉건적 질서로 하루가 다르게 진보와 개혁을 어렵게 만들어버린 것은 불가피하게 매일 매일 전반적인 굴종을 강화시켰고, 지배계급이 제국의 붕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패에 몸을 내맡기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이후 잉카가 16세기에 스페인인들—철제무기를 들고 불타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엘시드의 숭고한 용기로, 십자군의 종교적 열정으로, 근대의 황금빛 열망으로 신대륙의 정복을 시작한 그 사내들—에게 정복당한 이유가 있다.¹⁷⁾

15) *Ibid.*, p. 9.

16) Thurner, p. 125.

17) Lorente, pp. 6-7.

로렌테의 잉카 문명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여전히 우리의 잉카에 대한 인상, 즉 사회주의적(공동체적)이지만 개별성이 억압되는 체제라는 그 이미지 속에 면면히 남아있다. 즉 로렌테는 19세기 이후 잉카사회에 대한 이해의 기틀을 놓은 것이다.

로렌테는 면밀한 역사 연구를 통해 잉카를 연구했고, 교육적 목적으로 수많은 개론서(compendio)를 썼다. 그의 잉카관은 상당히 현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낙관주의적인 역사관을 통해 (잉카보다 후대인) 식민시대를 상대적으로 옹호한다. 로렌테의 잉카에 대한 비판—억압적이며, 찬란하지만 연약한—은 고대 오리엔트문명에 대한 그의 책에서 그가 당대 유럽의 역사가의 오리엔탈리즘을 본 따 오리엔트문명에 가한 비판과 거의 동일하다.¹⁸⁾ 독립시기 지식인이 원주민 항쟁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와 우리 조상의 사이를 벌려놓을 목적으로 임의로 원주민과 동지 의식을 부추기는 거짓된 시도”¹⁹⁾였다고 격렬하게 비판한 사람은 바로 로렌테만큼이나 계몽주의적이고 진보적이었던 아르헨티나 지식인 도밍고 파우스티노 사르미엔토였으며, 사르미엔토와 로렌테는 동시대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일치로, 당대 라틴아메리카 지성계의 뒤틀린 근대관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기존의 가치를, 특히 가톨릭 가치를 수호하려는 수정주의적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일부 보수파는 진보진영이 “우리의 [히스패닉]조상”을 외면하고 전통을 파괴하는 행위를 비판했고, 19세기 후반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그 탓으로 돌렸다.²⁰⁾ 한 지식인은 잉카와 아스테카가 “구대륙의 문명의 수준에 이르렀다면 발견과 탐험, 그리고 정복을 위한 군사적 행동은 실패했을 것”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²¹⁾

18) 물론 로렌테는 잉카의 공동체주의를 고대 아테네와 비견해 잉카가 동방적 미덕과 서방적 미덕을 모두 갖췄다고 추어올리며, ‘페루 정신’의 기초를 단단히 다진다. 로렌테의 관점에서 잉카의 공동체주의는 너무 확대되었기에 붕괴한 것으로 소규모 공동체주의의 경우 당대까지 이어지면서 페루 정신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Thurner, pp.137-8).

19) Sarmiento, "Review of *Investigaciones sobre el sistema colonial de los españoles*," 1844, *Obras*, 2:213. Earle, p. 5에서 재인용.

20) Woolde, D. R. (editor), *A Global Encyclopedia of Historical Writing* (2 Volume), Garland Publishing Inc., London & New York, 1998, p. 543.

21) Earle, p. 129.

하지만 이미 잉카는 페루 ‘국사’의 기원으로 단단히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상기했던 수정주의 역사가 역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더 나아가 마추픽추의 발견을 위시한 고고학적 성과는 오히려 페루의 사학계가 잉카에 대해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잉카적인 특성을 페루적인 것으로 더 확실하게 인식하는 계기를 형성했다. 20세기 초반 아우구스토 레기아(Augusto Leguía) 정권의 11년 독재 기간에는 민족주의를 통한 체제안정을 목적으로 원주민주의(indigenismo)가 국가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다.

IV. 마치며

완벽하고, 객관적이며 동시에 중립적인 역사를 쓰는 것은 분명하게 불가능하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역사서술학이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모든 역사기록은 어떤 의미로든 당대 상황에 대한 저자의 해석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19세기 페루라는 격변의 시대에서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대화”는 더욱 격렬하게 일어나는 게 당연할 것이다. 독립군 측의 사상가는 고대사를 현재의 독립혁명을 정당화하는데 끌어들이었다면, 왕당파는(본고에서는 그 맥락상 거의 다루지 못했지만) 반대로 스페인의 정복이 가져다 준 문명, 곧 복음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를테면 1811년 콜롬비아의 해안가로 쫓겨난 왕당파의 의회는 보고타의 독립군 의회에 편지를 보내 “정글대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종류의 과학을 가르쳤을까?”라고 물으며 조롱했다.²²⁾

한편 19세기 후반 보수파는 전통적인(다시 말해 스페인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호소하며 옛 정복자의 명령을 다시 불러냈고, 진보주의자는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승리의 기억을 아예 국사의 초안으로 삼거나,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보수파와 발을 맞추기도 했다. 이 언명이 가지는 함의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역사는 정당화를 위

22) Earle, p. 29.

해 무척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미국의 역사학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역사에 관해 이토록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한다.²³⁾ 그런 의미에서 세바스티안 로렌테의 ‘선생으로서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관념이면서도 그 저의의 파악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우리를 가르친다면, 그 매개자로서 역사가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사서술학은 역사에 대한 역사로서 또 다른 역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가를 통해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어쩌면 역사가가 다루는 역사가 아닌 역사가의 시각, 역사가의 텍스트에 드러난 역사가의 시대일지도 모른다. 세계적으로는 주변부로만 인식되는 페루의 지성계이지만 이들은 외부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함과 동시에 주체적인 역사관을 성립시킴으로써 당대를 역사 속에 성공적으로 투영시켰다. 본고는 국내에는 생소한 페루의 지성계에서 일어난 역사서술학의 변화를 통해 페루사를 보는 여러 관점을 소개하려고 했다. 하지만 본고 역시 역사서술학에 관한 역사적 기록(historical account)이니만큼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정한솔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재학

23) 린 힌트·조이스 애플바·마거릿 제이컵, 『역사가 사라져갈 때: 왜 우리에게 역사적 진실이 필요한가』, 김병화 역, 산책자, 2013, p. 208.